
미국 전기통신정책의 최근동향

1. 머리말

벨 시스템 분할 후 RHC 는 예상외의 고수익을 올리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피하고 있으며, 전화요금에 있어 Local 전화요금은 인상되고 장거리전화요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장거리전화시장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장거리전화사업자인 AT&T와 OCC 간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RHC 의 사업다각화와 전화요금 및 장거리전화시장에 관한 미국 각계의 견해 및 동향을 기술하도록 한다.

2. RHC 의 사업 다각화

벨 시스템 분할 후 RHC 는 경비삭감과 요금인상을 통해 예상 이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표 1> <표 2>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년 3% 에서 5% 밖에 성장이 예상되지 않는 Local 전화사업에 그치는 것을 우려하고, 또 바이패스의 위험에 점점 더 처해 있으며 Local 전화시장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단순히 Local 전화회사로서가 아니라 급속한 기술 진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IBM, AT&T와 나란히 정보산업의 담당자가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회사, software 회사, computer 소매 chain, Yellow Page 회사등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New Business 에 진출하고 있다 (단 수입은 전과 다름없이 Local 전화사업의 수입이 전체의 약 95%). 또 RHC는 이제 Bottleneck이 아닌 것으로써 제 2차 Computer 조사제정에 의해, FCC 에 의해 부과시키고 있는 비규제분야의 분리자회사요건의 철폐, 수정동의심결에 의한 장거리 서비스제공·기기제조·정보서비스제공의 금지에 대한 완화 및 특인수속의 간소화를 요청하고 정부·의회에 대해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표 1> RHC의 1985년의 수입·이익

RHC	수입 (억달러)		이익 (억달러)	
	1985년(1984년) 상승율		1985년(1984년) 상승율	
아메리텍크	90.21	(83.47) 8.1	10.78	(9.91) 8.8
벨·아틀란틱	90.84	(80.90) 12.3	10.93	(9.73) 12.3
벨·사우스	106.64	(96.31) 10.7	14.18	(12.57) 12.8
나이넥스	103.14	(95.73) 7.7	10.95	(9.86) 11.1
퍼시픽· 텔레시스	84.98	(78.24) 8.6	9.29	(8.29) 12.1
사우스웨스턴벨	79.25	(71.91) 10.2	9.96	(8.83) 12.8
US 웨스트 (참고)	78.13	(72.80) 7.3	9.26	(8.87) 4.4
A T & T (참고)	349.1	(331.9) 5.2	15.57	(13.70) 13.6
N T T (주)	254.5	[5조900 억엔]	15.81	[3,161 억엔]

(주) 1985. 4 - 1986. 3 1달러 = 200엔 환산

(각사의 1985년 Annual Report에서)

<표 2> RHC의 1986년의 제 1·4 분기 수입·이익

RHC	수입 (억달러)		이익 (억달러)	
	1985년(1984년) 상승율		1985년(1984년) 상승율	
아메리텍크	22.9	(22.2) 3.0	2.85	(2.74) 4.0
벨·아틀란틱	23.6	(21.2) 11.0	2.90	(2.55) 14.0
벨·사우스	28.0	(25.0) 12.0	4.20	(3.31) 27.0
나이넥스	26.7	(25.2) 6.0	2.97	(2.57) 15.2
퍼시픽· 텔레시스	22.2	(20.5) 8.1	2.74	(2.24) 23.0
사우스웨스턴벨	19.2	(19.2) 0.0	2.26	(2.65) - 15.0
US 웨스트 (참고)	20.3	(18.9) 7.1	1.80	(1.97) - 8.9
A T & T	87.5	(83.3) 5.0	5.30	(3.54) 50.0

(New York Times 1986. 5. 12 에서)

또한 RHC가 의회에 대해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제정을 희망하고 있는것은 Pacific Telesis와 Southwestern Bell뿐이고, 다른 RHC는 법률제정은 소비자에 대한 Subscriber Charge의 철폐등도 포함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장해가 될 가능성의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목적은 의회를 통하여 사법성에 대해 그턴판사에게 제한 및 완화의 권고를 하게 하는 것에 있다.

(1) FCC

전기통신분야 전반에 관하여 규제완화를 더욱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Local전화 Network의 이용이 자극된다하여 RHC가 사업다각화 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다. 또 분리자회사요건의 철폐에 대해 고도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1985년 7월 25일에 제 3차 computer조사를 게시하고 금년 5월 15일 RHC가 경쟁자에 대해서도 자기와 같은 조건으로 RHC의 Network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Open Network Architecture를 구성하는 것등을 조건으로 하여 분리자회사요건의 철폐를 결정했다. 또택내 기기(CPE)에 관해서는 금년 3월 13일에 규제를 완화하였다.

(2) NTIA(상무성 국가전기통신 정보청)

기술진보와 극적인 시장의 전개에 비추어 더욱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 2차 Computer 조사제정이 부과하고 있는 분리자회사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수정동의심결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정보 서비스(전자 출판은 제외)의 금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하며, 사업다각화의 특인수속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장거리전화서비스 제공의 제한과 기기제조의 제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속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사법성

반경계적인 행위 및 독점사업의 소비자에 의해 신사업에의 내부보조를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표명해 가고는 있지만 장거리전화서비스를 제외하고 수정동의심결의 변경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그러나 사법성이 그턴 판사에게 벨시스템 분할후의 산업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1987년 1월, 또 그 권고가 실시되는 것은 다시금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장거리전화 서비스에 RHC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벨 시스템 분할 전의 AT&T와 마찬가지로 Bottleneck 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RHC는 경쟁자에 대해 자기의 Local 전화 Network에 접속된 경우에 한하여 정보서비스분야에 진출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업다각화의 특인수속에 관해서는 독점금지과 사업다각화경영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고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또한 사법성은 1986년 3월 7일까지 접수된 89건의 특인수속 중에서 62건에 대해 호의적 권고를 덧붙여 이를 거절하고 있다.

(4)그런판사 (워싱턴 DC연방 지방재판소)

RHC는 사업다각화에 너무 열심이어서 그 결과 요금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는 우려가 있는 등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RHC의 사업다각화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금년 1월 13일, 아메리테크, 퍼시픽·텔레시스, US웨스트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에서의 자동차전화 서비스, 시외통신사업자자동선택서비스, 음성축적색출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는 RHC는 사업다각화의 특인신청수속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수정동의심결을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그것을 거절하고 이들 분야에서도 특인신청수속을 하라고 하고, 또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RHC는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년 3월 7일 현재, 사법성에서 제출을 받은 62건의 특인신청중 54건을 승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금년 2월 26일 퍼시픽·텔레시스가 달라스에 있는 Communications Industries사를 흡수합병하여 자기의 영업지역외 (아틀란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샌트피터즈버그 등)에서의 비전화계 자동차전화서비스, 포켓벨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몇가지 조건을 붙여 승인한다는 획기적인 결정도 하고 있다.

* 조건은 다음과 같다.

- Communications Industries사는 분리자회사로 한다.
- 용자는 Communications Industries사 자신이 획득한다.
- 수입은 퍼시픽·텔레시스 전체 년수의 10%를 넘지 않는다.
- 제조부문, 전화응답서비스 부문은 매각한다.
- 퍼시픽·텔레시스가 전화계 자동차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샌디에고에 있어 Communications Industries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전화계 자동차 전화서비스 부문을 매각한다.

· 퍼시픽·텔레시스는 자기의 영업지역내에서 경쟁하는 다른 자동차전화서비스회사 포켓벨서비스회사에 대해 Communications Industries사가 향유하는 전화망의 접속과 동일한 접속 및 요금을 준다.

(5) 의회

전체적으로 RHC의 사업다각화, 특히 전기통신기기의 제조,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으나 호의적이다. 이것은 의회 중에서 RHC의 강력한 로비활동을 받아 RHC는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만 곧이어 바이패스에 의해 이익이 감소한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힘을 기르게 해야 하며, 그것에 의해 장래 Local 전화요금인상이 억제된다고 한다. 또 벨시스템 분할에 의해 외국기업이 RHC에 대해 전기통신기기 매입을 활발하게 하고 그결과 대폭적인 전기통신기기 무역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RHC에게 제조권한을 주고 그것에 의해 외국기업에 대항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6) 기기제조업자

RHC는 Local 전화시장에서 지배적이지 경쟁적이지 아니라고 하고 RHC의 사업다각화는 벨시스템 분할전의 AT&T와 마찬가지로 독주 시키는 것이 된다고 반대.

(7) AT&T, OCC(다른 장거리 전화통신사업자)

RHC의 사업다각화에 반대. 특히 장거리전화 사업진출에 반대.

(8) 소비자

RHC의 사업다각화에 따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9) 주공익사업위원회

수정동의심결에 따라 RHC에 부과시킨 제한의 철폐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찬성하지만, 그것에 의해 오히려 주공익사업위원회가 감독에 관한 의무를 지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3. 전화요금

벨 System 분할 후 전화요금에 있어 Local 전화요금은 인상되고 장거리전화요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각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Local 전화요금의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장거리전화요금이 내렸다고 해도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자는 벨 시스템 및 규제완화에 의해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처럼 대기업뿐이라고 하고 있다. 또 FCC가 추진하고 있는 Life Line 계획도 Subscriber Line Charge만을 면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불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2) RHC

Local 전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의 bargain으로 보고 Local 전화요금의 인상을 더 요구하고 있다. 한편 Local 전화요금을 인상한다는 느낌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벨지방 전화회사가 종량·시간대·거리에 기인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해 가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상환기간의 단축을 요청하고, 또 바이패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전화회사에게 부과하는 Access Charge의 인하를 요청하여 경쟁에 지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Local 전화요금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3) FCC

장거리 전화요금의 인하를 강조하면서 Local 전화요금의 인상 폭이 크게 아니라고 보고 장거리전화요금에 따라 Local 전화요금이 보조를 받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전화요금을 Cost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화요금체계의 제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 1일 소비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Subscriber Line Charge가 금년 6월 1일부터 1달러에서 2달러로 인상될 때에 AT&T의 장거리전화요금의 인하를 인정했다. 한편 Local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한층 더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Local 전화요금의 인상에 따라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장거리 전화요

금의 인하에 의해 150억(20%) 회의 통화회수가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작년 10월 11일 FCC는 주공익사업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저소득자에 대한 Subscriber Line Charge와 주(State)가 결정하면 다른 Local 전화요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계획(Life Line 계획)을 채택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4) 의회

Local 전화요금의 높은인상에 의한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강하게 염려하고, FCC가 소비자보다도 대기업우선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또 그 중에는 벨시스템 분할은 실패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다. 전화요금의 높은 인하에 의해 저소득자는 전화를 갖지 않게되고 Universal Service를 확보할 수 없게됨으로써 Life Line문제가 최우선의 정치문제로 되고 있다. FCC 주공익사업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채용한 LifeLine 계획도 단순히 Subscriber Line Charge만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회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불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예를들면 금년 4월 상원산업위원회의 Gore의원(민주. 테네시주)으로부터 Subscriber Line Charge를 중지시키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5) 주 (州)

주(州) 레벨에서는 주공익사업위원회는 Local전화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FCC가 주에 대해 1983년 주내 전화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FCC가 주내 전화요금에 적용한 원가상환기간을 단축하는 수단을 채용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23개의 주가 소송을 일으켜 금년 5월 27일 최고재판소에서 FCC에게는 위의 요청을 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한편 금년 4월 18일 네브라스카주에서 전화회사가 공익사업위원회의 승인없이 12개월 이내에 10%의 Local 전화요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공익사업위원회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됐다. (1987년 1월 발효) 이것은 Local 전화요금의 규제완화를 추진한 획기적인 것이며 다른 주에게도 영향을 주게된다고 예상된다. 또한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도 전화회사에 대해 어느정도의 Local 전화요금설정의 자유를 주고 있지만 규모는 작다.

4. 장거리전화시장 · Equal Access

다른 장거리전화사업자인 AT&T와 OCC 및 각계의 장거리전화시장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AT&T

ATT는 벨시스템 분할 후 OCC가 강력히 부각되고 ATT의 Share도 축소하여 (<표 2> 참조), 장거리 전화시장이 경쟁적이 되었으므로 AT&T에게만 부과시키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예를들면 장거리전화료설정의 자유화, 비규제분야 Service를 위한 분리자회사요건의 철폐, Equal Access 후의 OCC에 대한 Access Charge의 discount 폐지등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OCC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이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결과이며 최적의 자원분배가 행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표 2> 장거리 전화시장의 Share

AT&T	78.9%
MCT/SBS	6.2%
GTE 스프린트 텔레콤	3.4%
ALC	1.0%
기 타	10.4%

(2) OCC

현재 MCI 이외의 OCC는 이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이며, 그 결과 장거리전화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OCC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OCC는 장거리전화시장이 아직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다고 간주하여 FCC의 AT&T에 대한 규제완화, AT&T의 요금인하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오히려 A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3) FCC

FCC는 장거리전화시장에서 MCI의 극적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OCC가 AT&T에 대한 경쟁자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AT&T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지하고 있다.

(4) NTIA (상무성 국가전기통신 정보청)

작년 7월 발표한 "국내 전기통신의 여러문제"에 관한 Report 중에서 저비용화, 서비스의 차별화, 판매대상지역으로의 초점집중에 의해 장거리전화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요금인하는 바람직한 정책목표라고 보고 있으나 OCC가 현재 급속한 Access Charge의 증대와 AT&T의 대폭적인 요금인하에 직면하여, 비용과 요금의 양면에서 억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1986 9월에 Equal Access가 실질적으로 완료할 때까지는 FCC는 AT&T의 요금인하를 계속 견제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5) 사법성

사법성은 2월 그린 판사에게 제출한 Report중에서 RHC가 Equal Access과정을 잘 실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Report에 의하면 벨·아틀란틱, 사우스웨스턴·벨, US 웨스트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고, 아메리테크와 벨·사우스는 처음에 고객에게의 통지절차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성의 염려에 신속히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넥스, 퍼시픽·텔레시스는 문제가 있었지만 절차를 조정하여 새로운 System을 게시했다.

(6) 의회

OCC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의 영향으로 OCC는 경영악화가 예상되고, 장거리 전화시장은 경쟁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시장 독점력이 있는 AT&T에 대해 FCC는 규제완화를 지나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